

끼(才)네스 북

## 숫자로 보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

2012년 외래 관광객 수가 1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한류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한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콘텐츠의 힘을 알리며 새로운 기록들을 갱신중이다. 대한민국 콘텐츠가 일궈낸 여러 기록들을 키워드와 함께 숫자로 살펴보자!

49억 18억 10만

### K-Pop : 49억, 18억, 10 만명

2012년, 세계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K-pop영상을 재생한 횟수는 무려 498,155,332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륙별 조회수는 아시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아시아의 K-pop영상 시청 조회수는 29억 7,668만159회를 웃돈다.

유튜브 조회수를 이야기할 때 빠지면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 <젠틀맨>으로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싸이가 그 주인공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는 약 18억 회를 달성하고 있으며 UK싱글 차트 첫 아시아 뮤지션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7주 연속 2위 등의 한국음악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싸이가 기록한 놀라운 숫자들은 많다.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지난해 9월부터 17개국서 50여 회에 달하는 활발한 해외 프로모션을 펼쳤으며 지난해 10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펼친 무료 공연 때 10만 시민이 운집, '최대 규모의 말춤'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 K-Pop : 85 만명

85만

한류의 주역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라이브 돔 투어를 통해 입장시킨 관객수다. 올해 8월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2일간의 공연에 동원한 관객 수는 14만 4천 명. 동방신기는 이번 라이브 투어를 통해 일본 5대 돔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동방신기는 외국인 뮤지션 최초로 닛산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펼치며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 뮤지션 최다 싱글 1위 및 톱10 싱글 수, 해외 뮤지션으로서 여러 차례 성공적인 콘서트 개최 등 기록을 재차 경신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의 힘 : 86%, 85%,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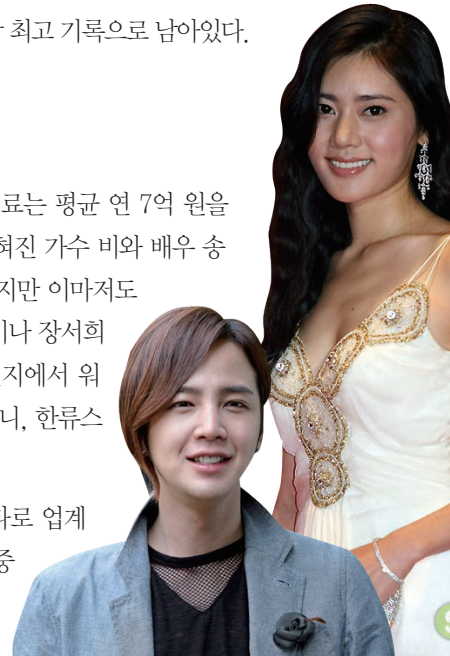
이란에서 <대장금>의 시청률(2007년)은 86%, <주몽> 시청률은 85%(2009년)을 기록했다.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한 두 드라마는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가진 보편적 스토리텔링을 앞세워 기존 한국사극의 한계를 돌파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번져갔다. 홍콩에서도 대장금의 인기는 마찬가지. 홍콩 TVB에서 방영되었던 <대장금>의 최종회 시청률은 47%로 아직도 홍콩 방송사상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류스타의 개런티 : 12억 원**

한류의 중심에서 있는 톱스타가 중국 현지에서 받는 광고 모델료는 평균 연 7억 원을 기록했다. 광고 한 편당 800만 위안, 즉 14억 원을 받는다고 밝혀진 가수 비와 배우 송혜교는 중국에서 가장 모델료가 비싼 스타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내의 유혹' 리메이크 버전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은 추자현이나 장서희의 어마어마한 모델료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한다. 중국 현지에서 워낙 인기가 높아 모델료가 비공개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한류스타의 중국 내 인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한류스타들의 개런티가 높다. 이미 최고의 한류 스타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장근석은 CF출연료로 2012년 한류스타 중 최고 수준인 9,000만엔(한화 약 12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



**게임수출 : 58%**



K-pop과 한류스타들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수출산업에서는 여전히 게임이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게임은 작년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58%를 차지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즉, 게임 콘텐츠는 2012년 2조 5,547억 원이라는 수출액을 달성하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게임과 함께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사업도 함께 번성하고 있다. 한류 캐릭터의 리더로 자리잡은 뽀로로는 캐릭터 로열티와 판매액으로 각각 150억 원과 6,000억 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뽀로로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만 8,000억 원, 경제적 효과는 5조 7,000억 원



에 이른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장르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만큼 문화콘텐츠사업이 갱신하는 기록의 숫자도 나날이 놀라워지고 있다.